

87. 조선소 도장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씨병

성별 남 **나이** 52세 **직종** 선박건조 도장작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김○○은 1987년부터 8년간 선박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2005년 8월 B대학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파킨슨씨병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김○○은 1983년부터 ○○조선 외주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다가 1987년 ○○조선에 입사 후 8년간 선행도장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붓도장 작업과 선체파워작업을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하였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안전개선부로 작업 전환하여 개선, 점검,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붓 도장 작업은 블록 내부의 스프레이 작업이 끝나면 다음날 페인트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두텁지 않게 도장된 천장이나 벽면에 도장을 하는 작업이었고, 선체 내 파워작업은 선체내부에서 용접된 부위를 갈아 매끄럽게 정리 후 신나로 세척하는 작업이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에서 도장부서의 혼합유기용제 평균 노출수준은 0.65에서 2.75이었으며, A대학병원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최대 10.2 까지 노출된 적이 있었다.(기준치 1미만) 그리고 현장방문 때 실시한 혼합 유기용제 평가결과에서 Touch Up 도장에서 준비과정의 작업자 1, 3, 5, 7, 9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는데, 실제 작업을 실시한 작업자 2, 4, 6, 8, 10에서는 노출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김○○는 담배는 하지 않았고 술은 잘 마시지 않았으며 입사 전 특별한 질병력은 없었고, 신경계질환, 정신질환의 가족력도 없었다. 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수관증후군, 척골신경증, 독성뇌병증, 신경뇌병증, 말초신경장애, 경추편파손상, 집중력장애, 인지기능장애, 녹내장의증 및 막망이상, 고혈압, 긴장성 두통, 만성기관지천식, 발기부전, 위염 이상 14가지 상병으로 산재승인 받았고, 계속 치료하던 중 경직, 서동, 보행장애로 B대학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이차적인 파킨슨씨병을 진단받았다.

4. 결론: 근로자 김○○은

- ① 선박건조업에서 약 12년 동안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만성 유기용제중독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데,
- ② 이후 서동, 경직, 가면양 얼굴 등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2005년 5월 왼손의 떨림현상이 발생하여 파킨슨씨병으로 진단받았지만, 레보도파 치료에 효과가 없는 등 전형적인 파킨슨씨병과는 임상양상이 차이를 보였으며
- ③ 최근 여러 연구에서 유기용제 노출은 파킨슨 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김○○의 질병은 도장작업 및 기타 작업 도중 노출된 유기용제에 의해 발생한 파킨슨 증후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